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사회 친밀도와 관련 변인

윤준상 · 최창욱*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Community Attachment of Residents and Its Related Variables

Jun-Sang Yoon and Chang Wook Choi*

Dept. Community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Community Attachment variables(specially, system model variables : gender, age, education, income, number of children, marital status, length of residence, and job) have been tested.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95 residents of Yesan in Chungnam. The SPSSWIN package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percent, t-test, and ANOVA were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Each hypothesis was tested at .01, .05, and 01 lev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1) the range of community attachment score was 17~56. The mean score of community attachment was 29.8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5.34. 2) t-test showed that job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5 level among gender, marital status, and job. 3) length of residence, age, and numbers of childre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5, .10, and .01, respectively.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보통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심리적 연대감을 가지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친밀도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그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애착심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개발은 학문의 특성상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참여 또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협동하며, 결과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John 등(1986)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

라고 하였다.

지역사회 친밀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역사회 친밀도를 크게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여 왔다. 그 하나는 인구크기와 인구밀도의 선형적인 증가가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형발전 모델(linear-development model)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개인적인 특성들로서 성(gender), 거주기간,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자녀의 수, 종교 등의 변수들이 지역사회 친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체제 모델(systemic model)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발사업에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체제모형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의 효과적인 지역사회개발 사업/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지역사회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일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의 형태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변인 설정

1) 선행연구의 변인 분석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연구에서 대표적인 학자는 Kasarda와 Janowitz(1974), Goudy(1990), Brown(1990), O'Brien과 Hassinger(1992)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다음의 <표 1>과 같았다.

조사에 사용된 방법은 Kasarda와 Janowitz(1974), Goudy(1990), Brown(1990)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Brien과 Hassinger(1992)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의 변인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rown(1990)의 연구와 최창욱(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변인을 설정하였다.

독립 변인은 체제 모델의 변인들로서 성별, 거주기간, 소득수준, 연령, 자녀의 수, 교육수준, 결혼 여부, 직업, 종교 등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지역사회 친밀도 변인은 크게 사회적 결합 부문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결합은 친구의 거주지역, 친지의 거주지역, 지역사회의 참여 조직수, 이웃과의 접촉 정도(길에서 만나 멈추어 이야기함, 응답자나 이웃의 집에서 담소를 즐김, 응답자나 이웃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함), 일터의 위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위치가 포함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행복도, 지역사회를 떠났을때의 슬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의 전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총 302매의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7매를 제외한 295매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

선행연구의 변인분석

연구자 (연도)	조사방법	설 정 변 인
Kasarda와 Janowitz(1974)	우편조사	1) 독립변인: 거주기간의 길이, 사회적위치, 연령, 인구크기, 인구밀도 2) 종속변인: 친구수, 친지수, 형식적 조직수, 사회활동 참여수, 친구수의 백분율, 친자수의 백분율, 교제수,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Goudy(1990)	우편조사	1) 독립변인: 거주기간의 길이, 수입, 연령, 인구크기, 인구밀도. 2) 종속변인: 친구수, 친지수, 지인(知人)수, 가입한 조직수,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Brown(1990)	우편조사	1) 독립변인: 인구밀도, 인구크기, 이질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취업상황, 자녀의 수, 결혼상황, 거주기간, 사회적 활동의 크기. 2) 종속변인: 기구적 결합, 이웃과의 접촉, 조직참여, 친지의 거주지역, 친구의 거주지역, 지역사회에서의 행복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지역사회를 떠나서 슬픔.
O'Brien와 Hassinger(1992)	면접조사	1) 독립변인: 거주기간의 길이, 교육수준, 객관적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연결망(friendship, 사업협력자수, 농장협력자수) 2) 종속변인: 지역사회 적응력, 지역사회 평가.

자료: 최창욱(1996),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기초통계로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이 18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0%에 해당하고, 여성은 115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9.0%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29세 이하가 90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30에서 39세가 77명(26.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의 43.3%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상 82명(27.8%), 중졸 54명(18.3%), 국졸 이하 31명(10.5%)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30년 이상이 107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
성 별	남 성	180	61.0
	여 성	115	39.0
연 령	29세 이하	90	30.5
	30 ~ 39세	77	26.1
	40 ~ 49세	67	22.7
	50세 이상	61	20.7
학 력	국졸이하	31	10.5
	중 졸	54	18.3
	고 졸	128	43.4
	전문대졸 이상	82	27.8
거주기간	9년 이하	44	14.9
	10 ~ 19년	59	20.0
	20 ~ 29년	85	28.8
	30년 이상	107	36.3
소 득	1,000만원 미만	86	29.2
	1,000만원 대	103	34.9
	2,000만원 대	65	22.0
	3,000만원 이상	41	13.9
직 업	농 업	99	33.6
	비농업	196	66.4
결혼여부	결 혼	219	74.2
	미 혼	76	25.8
자녀의 수	없 음	80	27.1
	1 명	29	9.8
	2 명	86	29.2
	3명 이상	100	33.9
종 교	기독교	74	25.1
	천주교	31	10.5
	불 교	70	23.7
	기 타	120	35.9
계		295	100%

로 20년~29년(28.8%), 10년~19년(20.0%), 9년 이하 44명(14.9%)의 순이었다.

소득에 있어서는 1,000만원대가 103명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하였으며, 1,000만원 미만이 86명(29.2%), 2,000만원 대 65명(22.0%), 3,000만원 이상이 41명(13.9%) 순이었다. 직업은 크게 농업과 비농업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비농업이 196명으로 전체의 66.4%, 농업이 99명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219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였고, 미혼이 76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수는 3명 이상이 10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명이 86명(29.2%), 없음이 80명(27.1%), 1명이 29명(9.8%)의 순이었다.

한편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외의 기타 종교나 종교없음이 120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 74명(25.1%), 불교 70명(23.7%), 천주교 31명(10.5%)의 순이었다.

2. 지역사회 친밀도 점수 분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친밀도의 최고점은 60점 만점에 56점이고 최하점은 17점이며, 전체 평균은 29.8점, 표준편차는 5.336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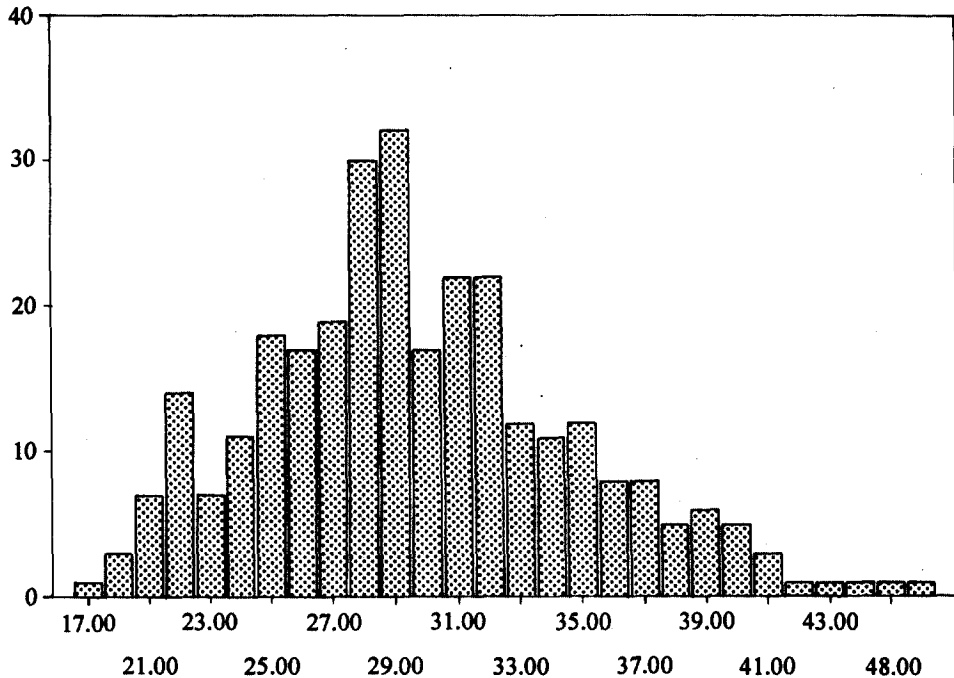
3. 독립변인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t-Test

독립변인 중 성별, 결혼여부(결혼/미혼), 직업(농업/비농업)에 대한 평균간의 차이 검증을 위한 t-Test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성별에 따라 지역사회 친밀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성은 평균 29.4833점, 여성은 평균 30.1913점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지역사회 친밀도 평균점수가 높

Bar Chart



친밀도

〈그림 1〉 지역사회 친밀도 점수 분포

〈표 3〉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구 분	빈 도	평 균 (점)	표 준 편 차	t 값
남	180	29.4833	5.4069	-1.112
여	115	30.1913	5.2196	(NS)

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결혼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결혼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친밀도 평균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t-Test를 실시한 결과 결혼한 사
람의 평균은 30.0457, 미혼자의 평균은 28.9342
로 결혼한 사람이 미혼자에 비하여 평균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3) 직업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직업에 따라 지역사회 친밀도 평균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t-Test를 실시한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의 평균점수가 30.8182, 비농업은 29.2245로
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농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이것은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표 4〉 결혼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구 분	빈 도	평 균 (점)	표 준 편 차	t 값
결 혼	219	30.0457	5.3935	1.568
미 혼	76	28.9342	5.1156	(NS)

〈표 5〉 직업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구 분	빈 도	평 균 (점)	표 준 편 차	t 값
농 업	99	30.8182	5.1436	2.442**
비 농 업	196	29.2245	5.3657	

** :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4. 독립 변인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ANOVA 검증

독립변인 중 거주기간, 소득, 학력, 연령, 자녀의 수, 종교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검증과 사후검증인 LSD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거주기간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거주기간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9

년 이하가 평균 30.52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19년 30.4407, 30년 이상 30.2710, 20~29년 28.2471의 순이었다. 또한 이것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선행연구의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의 길이가 길수록 지역사회 친밀도는 높아진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후 검증결과 9년 이하와 20~29년, 10~19년과 20~29년, 30년 이상과 20~29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거주기간에 따른 지역사회친밀도

구 분 거주기간	빈 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F	LSD 검증			
						(1)	(2)	(3)	(4)
9년 이하	44	14.9	30.5227	6.4393	3.299**	(1)			
10 ~ 19년	59	20.0	30.4407	5.0284		(2)			
20 ~ 29년	85	28.8	28.2471	5.1267		(3)	☆	☆	
30년 이상	107	36.3	30.2710	4.9916		(4)			☆
계	295	100.0	29.7593	5.3369					

** :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2) 소득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이 30.25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00만 원 이상 30.1463, 2,000만원대 29.4615, 1,000만원대 29.3786의 순이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또한, 사후검증에서도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의 평균

<표 7> 소득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F
1,000만원 미만	86	29.2	30.2558	5.5713	.560 (NS)
1,000만원 대	103	34.9	29.3786	5.3157	
2,000만원 대	65	22.0	29.4615	5.1146	
3,000만원 이상	41	13.9	30.1463	5.1377	
계	295	100.0	29.7593	5.3369	

3) 학력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이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학력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졸 이하가 31.7742, 중졸이 29.9815, 고졸이 29.5156, 전문대졸 이상이 29.2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사후검증 결과 국졸이하와 고졸, 국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력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F	LSD 검증			
						(1)	(2)	(3)	(4)
국졸 이하	31	10.5	31.7742	5.8975	1.877 (NS)	(1)			
중 졸	54	18.3	29.9815	5.1597		(2)			
고 졸	128	43.4	29.5156	4.9054		(3)	☆		
전문대졸 이상	82	27.8	29.2317	5.7784		(4)	☆		
계	295	100.0	29.7593	5.3369					

4)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이상이 30.7213, 40~49세가 30.6269, 29세 이하가 29.2000, 30~39세가 28.89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증결과 30~39세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세

<표 9>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연령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	LSD 검증			
							(1)	(2)	(3)	(4)
29세 이하		90	30.5	29.2000	5.5611	2.281*	(1)			
30 ~ 39세		77	26.1	28.8961	4.6441		(2)			
40 ~ 49세		67	22.7	30.6269	5.9131		(3)			
50세 이상		61	20.7	30.7213	4.9703		(4)		☆	
계		295	100.0	29.7593	5.3369					

* : 10%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와 50세 이상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5) 자녀의 수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자녀의 수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명 이상이 평균 31.7900, 1명이 29.3793, 2명이

28.3953, 없음이 28.8250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사후 검증 결과 없음과 3명 이상, 1명과 3명 이상, 2명과 3명 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자녀의 수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자녀의 수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	LSD 검증			
							(1)	(2)	(3)	(4)
없음		80	27.1	28.8250	5.0511	5.114***	(1)			
1명		29	9.8	29.3793	6.0262		(2)			
2명		86	29.2	28.3953	4.0330		(3)			
3명 이상		100	33.9	31.7900	5.7845		(4)	☆	☆	☆
계		295	100.0	29.7593	5.3369					

***: 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음.

6) 종교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종교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 30.3714, 천주교 29.8065, 기타 29.7500, 기

독교 29.1757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사후 검증결과도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11>

종교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종교 \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
기독교	74	25.1	29.1757	4.5971	.600 (NS)
천주교	31	10.5	29.8065	6.7696	
불교	70	23.7	30.3714	5.4405	
기타	120	35.9	29.7500	5.3157	
계	295	100.0	29.7593	5.3369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사회 주민들의 효과적인 지역사회개발 사업/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그 지역사회에 대하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성별, 거주기간,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자녀의 수, 종교 등)에 대한 지역사회 친밀도 점수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서는 남자(61.0%)가, 연령에서는 29세 이하(30.5%)가, 학력에서는 고졸(43.4%)이 가장 많았다. 거주기간은 30년 이상(36.3%)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1,000만원 대(34.9%)가, 직업은 비농업(66.4%), 결혼여부는 결혼(74.2%)이 많았다. 자녀의 수는 3명 이상(33.9%)이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외의 기타종교 및 종교 없음(35.9%)이 가장 많았다.

2) 지역사회 친밀도의 도수분포를 보면 최고점은 60점 만점에 56점이고 최하점은 17점이며, 전체 평균은 29.8점, 표준편차는 5.3369이었던

다.

3) 성별, 결혼여부, 직업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점수의 평균값 차이를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직업에 있어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4) 거주기간, 소득, 학력, 연령, 자녀의 수, 종교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평균값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주기간은 5% 수준에서, 연령은 10% 수준에서, 자녀의 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과적으로 직업, 거주기간, 연령, 자녀의 수에 따라서 지역사회 친밀도 점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참고문헌

- 고순철. 1992. 제주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만족도 연구, 서울대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김남선. 1994. 지역사회개발학 연구, 지역발전연구센터 출판부.
- 김두섭. 1994.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 분석, 법문사.
- 송두범, 김남선. 1992. 농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참여 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연구.
- 윤준상. 1994. 지역사회개발 행정사업에 대한 주민의 집단행동 참여와 그 관련 변인, 서울대 박사 학위논문.

6. 정지용, 임상봉. 1997. 지역사회개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7. 최창욱. 1996.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_____ 외. 1997.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4권 제1호, pp. 317-327.
9. Brown, Samuel R.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a Racially Integrated Neighborhood, Pennsylvania: the Univ. of Pennsylvania Press, Thesis.
10. Cook, Annable Kirschner. 1975. Factors Related to Community Satisfac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Washington state Univ.Press, Thesis.
11. Goudy, Willis J.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a Rural Region", Rural Sociology 55(2):178-198.
12. Kasarda, John D. & Mor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y Review 39(june):328-339.
13. Ladewig, H. and G. McCann. 1981. "Community Satisfaction: Theory and Measurement", Rural Sociology, 45:110-131.
14. O'Brien, David J. and Edward W. Hassinger. 1992. "Community Attachment Among Leaders in Five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Vol. 57, No. 4.
15. Sampson, Robert 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766-779.